

올해 가장 많이 공감받은 날씨 기록 공개

-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 발표
- 얼음 속에 갇힌 듯한 백록담을 담은 김정국 씨의 <얼음 속 한라산> 대상 선정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3월 13일(수),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kma)과 공모전 누리집(www.weather-photo.kr)을 통해 발표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683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의 합산으로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본선 심사에 참여한 여섯 명의 위원은 “날씨로 비롯된 자연적, 사회적 상황을 담은 작품들이 전하는 의미가 매우 커, 점수를 매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며 국민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제 10일간 진행된 국민투표 역시 후보작 모두 고른 표를 받으며 치열한 순위 경쟁을 보였다.

대상(환경부 장관상)에는 겨우내 많은 눈이 내린 한라산 백록담이 마치 얼음에 갇힌 듯한 장면을 담은 <얼음 속 한라산>(김정국)이 선정됐다.

금상은 해발 540m에 위치한 굽이굽이 고갯길이 도드라지는 설경을 드론으로 담아낸 <보발재의 겨울>(이상운)이 수상했다. 은상은 가을 단풍 위로 첫눈이 내려 두 계절이 공존하는 모습을 포착한 <가을 속 설경>(김범용),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조현상으로 관찰된 야광충이 뿜어낸 색을 담아낸

<푸른빛 물결>(김대권), 동상은 강원도 삼척시에 밤새 내린 눈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치우는 제설 차량의 모습을 담은 <제설작업>(나기환) 등이 수상했다.

영상 기록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고려해 다섯 번째로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한 영상 부문은 올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가운데, 특별상(3점)에 <계절의 변화>(이기성), <물안개 피는 아침>(김동춘), <운무로 뒤덮인 도심>(김종화)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3.21.~3.24.)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3.20.~3.28.)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서 상시 관람 및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누구나 내려받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자세한 행사 일정은 기상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공모전 누리집 참조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그동안 우리가 마주했던 과거의 장면이자 현재의 일상이며,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 자료입니다. 바쁜 일상 속 미처 만끽하지 못한 주변의 아름다움, 아찔하고 긴박한 순간이 주는 경각심 등을 느끼며, 감성과 교훈을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라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기후 기록 저장소이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상기후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 현황
2.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주요 수상작 소개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김희철 (02-2181-0352)
		담당자	사무관	우진규 (02-2181-0353)

붙임 1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 현황

구분	수량	상훈	상금	성명	작품명	
사진 부문	대상	1점	환경부 장관상	500만 원	김정국	얼음 속 한라산
	금상	1점	기상청장상	200만 원	이상운	보밭재의 겨울
	은상	2점		각 100만 원	김범용	가을 속 설경
					김대권	푸른빛 물결
	동상	3점		각 50만 원	나기환	제설작업
					홍민혁	침수
					유정호	폭설로 인해 마비된 도심
	입선	30점		-	각 20만 원	최강규(눈 오는 풍경) 외 29명
영상 부문	특별상	3점	기상청장상	각 50만 원	이기성	계절의 변화
					김동춘	물안개 피는 아침
					김종화	운무로 뒤덮인 도심
계	총 40점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대상) 얼음 속 한라산 / 김정국 작</p>	<p>(사진) 겨우내 많은 눈이 내리는 한라산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폭설이 내려 삼각봉에는 눈이 92.7cm까지 쌓였다고 합니다. 그때 내린 눈이 남아,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한 백록담의 모습입니다.</p>	<p>2024. 01. 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p>
 <p>(금상) 보발재의 겨울 / 이상운 작</p>	<p>(사진/드론) 해발 540m에 위치한 고갯길인 보발재는 굽이굽이 아름다운 단풍길로 유명한데요. 눈 내린 겨울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리고자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p>	<p>2024. 01. 10. 충청북도 단양군</p>
 <p>(은상) 가을 속 설경 / 김범용 작</p>	<p>(사진/드론) 약 2km에 걸쳐 추정 수령 300~400년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히 자리 잡은 관방제림길에 첫눈이 내린 날입니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p>	<p>2023. 11. 18. 전라남도 담양군</p>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은상) 푸른빛 물결 / 김대권 작</p>	<p>(사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적조 현상으로 관찰된 야광충이 끊임 없이 움직이는 파도로 인해 푸른 빛을 띠니다.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현상이 최근 여러 곳에 나타나, 기후변화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p>	<p>2023. 05. 22. 충청남도 서천군</p>
 <p>(동상) 제설작업 / 나기환 작</p>	<p>(사진/드론)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제설작업 차량 2대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제설 중인 모습입니다. 이날 낮 동안 많은 눈이 내리며 18.7 cm의 적설이 기록됐습니다.</p>	<p>2023. 02. 1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p>
 <p>(동상) 침수 / 홍민혁 작</p>	<p>(사진) 7월 13~14일에 걸쳐 200 mm 내외의 많은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로 불어난 한강 물에 침수된 반포한강공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 복구로 많은 분이 애쓰셨던 게 생각납니다.</p>	<p>2023. 07. 15. 서울특별시 서초구</p>
 <p>(동상) 폭설로 인해 마비된 도심 / 유정호 작</p>	<p>(사진) 2021년이 시작되면서 서울·경기에 폭설이 내리는 등 한파가 왔었는데요. 특히 1월 6일 퇴근 시간대, 시간당 6.8 cm의 많은 눈이 내려 순식간에 교통이 마비된 교대역 사거리의 모습입니다.</p>	<p>2021. 01. 06. 서울특별시 서초구</p>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특별상) 계절의 변화 / 이기성 작</p>	<p>(영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계절감이 잘 느껴지는 기상현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만끽해 주세요.</p>	<p>2021. 01. 11. ~ 2024. 01. 12.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 각지</p>
 <p>(특별상) 물안개 피는 아침 / 김동춘 작</p>	<p>(영상) 일교차가 큰 날이면 아름다운 물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몽클한 감동과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p>	<p>2023. 10. 24. ~ 2024. 01. 13.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 일대</p>
 <p>(특별상) 운무로 뒤덮인 도심 / 김종화 작</p>	<p>(영상) 모두가 잠든 밤, 시끌벅적했던 도심이 운무에 가려져 마치 바다 위에 등대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p>	<p>2024. 01. 18.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p>